6월28일 Market Index
코스피 2797.82 (+13.76)
코스닥 840.44 (+1.79)
금리(국고채 3년) 3.182 (-0.038)
환율(원·달러) 1376.70 (-9.1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7월 1일 월요일

효성 '지주사' 전환
조현준·조현상
독립경영 첫 발
02

최태원 "5년간 103조 투자,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

SK그룹, 경영전략회의

수익성·사업구조 최적화로 3년간 재원 80조 확보 의견

투자금 80% AI사업에 투입 AI 데이터센터 예산 3.4조

"AI(인공지능)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가치사슬)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준비 등을 위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SK그룹은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103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투자금의 전체 80%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쏟기로 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최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주요 계열사 CEO 20여명 등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SK그룹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최고경영진은 밸류체인 재정비 등을 위해 운영한 다양한 TF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각 사는 합의한 방향성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 각 사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트랜지션(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준비 등을 위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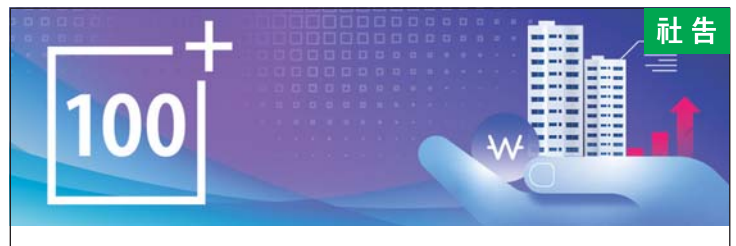
SK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수익성 개선과 사업구조 최적화, 시너지 제고 등으로 2026년까지 80조원을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환원 등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 개선을 통해 3년 내 30조원 잉여현금흐름(FCF)을 만들어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또 지난해 10조원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이 올해는 흑자로 전환해 2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 세전이익 목표는 40조원대로 잡았다고 밝혔다.

SK그룹은 AI·반도체 투자를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개인형 AI 비서(PAA)를 포함한 AI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을 더욱 정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3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약 82조원(80%)을 투자한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5년간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최고경영자(CEO)들은 AI·반도체 밸류체인에 관련된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7월 1일 부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반도체위원회'를 신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위원장으로 보임키로 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가 오는 7월 17일(수) 오후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에 금융·자산시장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이 최고가를 경신중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커진 덩치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미래 삶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을 궁리해야 할 때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당면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정재훈 KB부동산 박사,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 등 자산관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 합니다.

- 행 사 명 :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 주 제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일 시 : 7월17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3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등록 : '2024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www.metroseoul.co.kr),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엔화값 추락… 100엔당 850원 '16년만에 최저'

엔·달러 환율 37년 만에 최고치
KB 등 5대은행 엔화예금 잔액 1조2924억엔, 6개월새 14% ↑
전문가, 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엔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대로 떨어져 16년 만에 최저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슈퍼 엔저'에 국내 엔화 예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원·엔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100엔당 855.60원에 마감했다. 이는 작년 11월 기록한 연중 최저치인 858.38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 2008년 1월 10일 기록한 855.47원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같은 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도 장중 161.20엔까지 치솟아 37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경신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향후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한 엔화 매수 및 일본 관광을 준비하는 환전 수요도 늘어 국내 엔화 예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약 1조2924억엔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록한 1조1330억엔 대비 반년 만에 1594억엔(14.1%) 늘었다.

이번 엔화 가치 하락은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기운데 일본은행이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해 5.4~5.5%포인트(p)에 달하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미 연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발표한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를 1회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점도표에서 2회 줄어든 전망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는 9월 이후 1~2차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 극복을 위해 FOMC 직후 개최되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난 14일 금융정책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0~0.1%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개입을 천명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지난 27일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움직임을 분석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개입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일본 통화 당국은 지난 4월 말에도 엔화 가치 유지를 위해 85조원 규모에 달하는 시장 개입에 나선 바 있다.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0엔대 초반까지 내렸지만, 다시 상승 전환해 지난 27일에는 달러당 160엔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엔·달러 환율은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신뢰가 재확인되는 시점에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내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7월 말 환율의 고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이 정책적 실기를 한 측면이 있어 7월 추가 긴축 조치가 엔화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미 엔화의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에서 투기 세력의 엔화 약세 공격이 진정될 지 불투명하며,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버스티비 J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오세훈 "극단 치닫는 팬덤정치…사이다보다 담백한 생수같은 정치할 것"
▲한동훈 측, '尹 배신자론'에 "국민에 대한 협박…공한증 퍼져" /사진 뉴시스

▲'한동훈은 3무 후보' 공세 원희룡 "차별화와 배신, 종이 한 장 차이"
▲침묵 깬 황교안 "이재명 처벌 너무 늦어져, 구속돼야…이건 정의 아냐"

▲한·미·일 '프리덤 에지훈련' 성공에…北 "아시아판 나토" 맹비난 /사진 뉴시스
▲북한 공식 석상에 '김정은 배지' 등장…단독 우상화에 가속도